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홍예지¹⁾ 안혜령²⁾

요약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 및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2차 데이터에서 1,248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 및 부모의 소외감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과는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착 중 신뢰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 모두 유의하였다.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의 역할을 각각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학업스트레스, 자아정체감,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초기 청소년

I. 서론

나는 누구이며,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인간은 가정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시험한다(Steinberg & Morris, 2001).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적 단계로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분리를 시작하면서 자아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 본 논문은 2023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2)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Allen & Land, 199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내적 탐색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데(민하영·권기남, 2004),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적 물음에 답하려는 노력은 삶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찾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시각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획득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며, 인생의 목표를 세워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안정적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 반면에 자아정체감의 획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혼미를 경험한다면 자아를 부정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며 목표의 상실로 인한 인생의 방향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자아정체감의 획득과 역할 혼미의 위기를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한 청소년은 내적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 가치, 신념, 미래 목표를 견고히 할 수 있다(Erikson, 1968; Shirima, Naudé, & Esterhuysen, 2021). 따라서 청소년기 이뤄야 할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에 위협요인이 무엇이며,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또 다른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 학교 요인 및 가정 요인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Allison & Sabatelli, 1988; Erikson, 1968). 학교는 청소년의 자아 발달을 지원하는 주요 환경이다(Verhoeven, Poorthuis, & Volman, 2019). Marcia(1993)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내적,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exploration)과 헌신(commitment)의 두 개의 영역이 기능함으로써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탐색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활동이나 대안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며, 헌신은 교육, 직업, 세계관 등 일련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고수를 말한다.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학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탐색과 헌신 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있으며(Negru-Subtirica, Pop, & Crocetti, 2015; Verhoeven, Poorthuis, & Volman, 2019), 선행연구는 학교 적응(채미경·김현숙, 2018; Ma, Ma, & Lan, 2020), 학교 분위기(Rich & Schachter, 2012), 학업 성취(Reynolds, Lee, Turner et al., 2017)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맥락에서 자아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중, 고

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Morsunbul, Crocetti, Cok et al., 2016), 민족적, 인종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정체감 등 서구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특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였다(Kingsford, Hawes, & de Rosnay, 2018; Zlotnick, Goldblatt, Birenbaum-Carmeli et al., 2019)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부(2022a)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중,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중,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44.5%)과 고학년(43.9%)이 지각한 학업 스트레스가 중학생(39.8%) 및 고등학생(43.7%)보다 높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교육부, 2022b). 본격적인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중, 고등학생의 자발적 교육 참여에 비해 초등학생에게는 부모 주도의 사교육이 활발하게 제공되어 비주도적인 교육 참여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높았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외의 사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이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며, 이는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학업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는 불안이나 우울(김희주·이지민, 2014; Zhang, Yan, Shum et al., 2020), 공격성(채진영, 2012; Li, Zhang, & Cheng, 2023) 및 스마트폰 중독(Xu, Wang, Fonseca et al., 2019) 등의 관계를 주로 언급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관련 연구가 존재하나 중학생을 대상(김나예, 2021)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를 믿는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최은경·조운옥, 2016)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초등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앞서 상술했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중, 고등학생보다 높고, 성인기의 전 단계로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기 청소년기로 신체, 사회, 법 등에 위협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려는 자극추구성향을 보이며 정서적 각성의 수준이 높다(박재홍·김성환, 2011; 홍예지, 2023).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업 스트레스로부터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심리정서적 갈등을 해결하고 발달적 성숙을 경험해야하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초기 시점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입시 경쟁을 경험하는 중학교로의 전이를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미래 지향 목표를 더 뚜렷하게 세울수록 자아정체감 및 이후의 진로정체감에도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침(조한익·김영숙, 2016; Côte & Levine, 1983)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로의 원활한 전이를 위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주목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초기 청소년의 자아 발달 개념 중 자아정체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청소년기 학교 내외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정서적 특성 중 하나인 학업스트레스가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원활한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더 잘 반영하여 자아정체감이 더 빠르게 발달한다는 연구(Mohanty, 2017)가 있으나,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Sharp, Coatsworth, Darling et al., 2007)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더불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Lee와 Beckert(2012)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을 모두 통제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학교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요인으로 확장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부모와의 애착을 확인하고자 한다. 애착은 인생 초기 영아와 양육자 간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Bowlby(1958)가 제안한 개념으로, 주변 세계를 탐색하면서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느끼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였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애착은 이후 성장하면서 인지 발달에 따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이는 각 개인이 자신과 타인 및 주변 세계에 대해 갖는 내적 표상을 말하며, 개인은 이를 바탕으로 주변 사건을 지각하여 해석하고, 관련 결과를 예측하여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데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형성된다.

애착의 전 생애 발달 이론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질 좋은 상호작용을 경험한 아동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영유아기의 애착의 질이 이후 전 생애에 걸쳐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 선택, 자기평가 및 타인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owlby, 1969). 이에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이후 청소년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으로까지 이어진다.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가족 이외의 또래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애착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채진영, 2012), 이들에게 부모는 여전히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Emmanuelle, 2009)을 하고, 관련 연구(김나예, 2021; 김희주·이지민, 2014; Brar, 2013; Howard & Medway, 2004; Kim & Lee, 2013)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와의 애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Brar(2013)은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10대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지지적 역할을 하여 학업 압력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며, Kim과

Lee(2013)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더 취약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와 애착의 관계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까지 확장하여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박미숙과 구자경(2012)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부적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김나예(2021)도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가족 기능이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아정체감은 부모와의 애착과 관련이 있으며(김효은·김중운, 2016; 최효식·연은모, 2022; Hall & Brassard, 2008; Lee & Beckert, 2012), 특히 부모와의 애착은 위협이나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상황에서 개인 요인, 학교 환경 등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할 때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연구(Maltais, Duchesne, Ratelle et al., 2017; Xie, Chen, Zhu et al., 2019)를 근거로 초기 청소년이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맥락에서 부모와의 애착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아정체감을 이해하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이 주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또래 애착(Berman, Weems, Rodriguez et al., 2006; Ji, Lan, Ma et al., 2023)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름(Verschueren, 2020)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의 역할을 각각 살펴본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므로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의 다차원적 애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 각각 형성한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으로 구성된 애착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안정 애착이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학교 요인과 가정 요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초기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 발달을 돕는 데 필요한 실증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 및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의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두 변인 간 관계에서 부와 모의 애착이 각각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전체 표본 중에서 연구 변인에 모두 응답한 총 1,248가구의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구성 형태를 기준으로 부와 모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애착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부모와 자녀 87.7%, 조부모, 부모 및 자녀 8.1%, 조부모, 부모, 자녀 및 친척 3.5%, 부모, 자녀 및 친척 0.6%이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51.8%, 여아 48.2%이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42.03세($SD = 3.64$)이며, 40대 72.2%, 30대 23.0%, 50대 4.1% 순이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44.53세($SD = 3.90$)이며, 40대 80.1%, 50대 9.2%, 30대 8.7%, 60대 0.1% 순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38.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29.3%, 고졸 이하 25.4%, 대학원 졸업 6.4% 순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 40.3%, 고졸 이하 25.3%,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20.8%, 대학원 졸업 11.7% 순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4.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2.7%, 7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3.7%, 900만원 이상 8.5%, 300만원 미만 4.9%이다.

2. 주요 변인

가. 자아정체감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송현옥(2009)의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연구진이 8개의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한 척도로 수집되었다. “나는 계획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에 아동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5개의 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Cronbach's alpha는 .61이다.

나.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3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그런 적 없다:1점~항상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79이다.

다. 부모 애착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척도를 이정림·김지현·이규림 외(2017)가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12차년도 조사 대상에 맞도록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로 수집되었다. 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부와 모 애착의 각 12문항에 아동이 응답하였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등 의사소통 6문항,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등 소외감 3문항, “아버지/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등 신뢰감 3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점~항상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애착 즉,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의 Cronbach’s alpha는 .85, .52, .60이며, 어머니의 애착 즉,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의 Cronbach’s alpha는 .87, .50, .57이다.

3. 분석 방법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적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변인은 모두 평균중심화하였고, 조절변인의 16퍼센트, 50퍼센트, 84퍼센트에 따라 변화하는 독립변인의 효과 값을 확인하는 Pick-a point 방식을 활용하였다(Hayes, 2018). 이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인의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전 구간에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근거하여 조절변인 값이 심하게 편포되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에

Hayes(2018)에 따라 조절변인의 16%, 50% 84%의 세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독립변인의 효과값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효과는 비표준화 계수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비표준화 계수가 표준화 계수보다 자료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Hayes(2017)에 근거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평균은 2.77점($SD = .37$),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은 2.12점($SD = .85$)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의 평균은 신뢰감, 의사소통 및 소외감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보다 다소 높았고, 어머니의 소외감은 아버지의 소외감보다 다소 낮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긍정적 애착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r = -.39, p < .001$)을 보였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정적 상관($r = .27 \sim .31, p < .001$), 소외감과는 부적 상관($r = -.20, p < .001$)을 보였다. 반면에 학업스트레스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부적 상관($r = -.32 \sim -.24, p < .001$), 소외감과는 정적 상관($r = .17 \sim .21, p < .001$)을 보였다. 부모 애착의 하위 요인 간에는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소외감 간 및 아버지의 소외감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r = -.31 \sim .61, p < .001$)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1. 자아정체감	-							
2. 학업스트레스	-.39***	-						
3. 부애착_의사소통	.28***	-.24***	-					
4. 부애착_소외감	-.20***	.17***	-.11***	-				
5. 부애착_신뢰감	.31***	-.25***	.58***	-.29***	-			
6. 모애착_의사소통	.27***	-.28***	.57***	-.06	.42***	-		
7. 모애착_소외감	-.20***	.21***	-.02	.46***	-.18***	-.11***	-	
8. 모애착_신뢰감	.29***	-.32***	.33***	-.18***	.54***	.61***	-.31***	-

	1	2	3	4	5	6	7	8
평균	2.77	2.12	3.53	2.64	4.01	3.95	2.55	4.21
표준편차	.37	.85	.79	.75	.79	.74	.75	.71
왜도	.25	.49	-.15	.30	-.61	-.46	.36	-.75
첨도	.52	-.19	-.46	.32	-.15	-.30	.47	.01

*** $p < .001$.

2.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가.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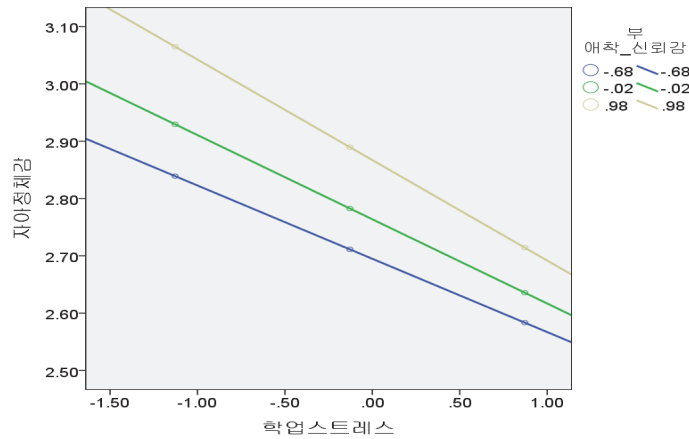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초기 청소년의 성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된 후,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 애착의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은 자아정체감에 각각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고, 학업스트레스와 신뢰감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B = -.151, p < .001$)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B = .090,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9.50%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B = -.161, p < .001$)와 아버지로부터의 소외감($B = -.069,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로부터의 소외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7.90%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B = -.147, p < .001$)와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B = .103,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B = -.029, p < .05$)도 유의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20.70% 설명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과 학업스트레스 두 변인의 상호작용 양상을 Pick-a-point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의 16%(.984, $p < .001$), 50%(-.016, $p < .001$) 및 84%(-.683, $p < .001$)에서 모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표 2〉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의 조절효과

	B	S.E.	t	p	LLCI	ULCI	R ²	F
상수	2.567	.143	17.916***	.000	2.286	2.848	.195	56.205***
성	-.001	.019	-.046	.964	-.039	.037		
월평균 가구소득	.032	.023	1.414	.158	-.013	.077		
학업스트레스	-.151	.012	-12.842***	.000	-.174	-.128		
부애착_의사소통	.090	.013	7.098***	.000	.065	.115		
학업스트레스 X 부애착_의사소통	-.009	.014	-.597	.551	-.037	.020		
상수	2.528	.145	17.493***	.000	2.244	2.811	.179	50.550***
성	-.006	.020	-.310	.757	-.045	.032		
월평균 가구소득	.039	.023	1.699	.090	-.006	.085		
학업스트레스	-.161	.012	-13.788***	.000	-.184	-.138		
부애착_소외감	-.069	.013	-5.211***	.000	-.094	-.043		
학업스트레스 X 부애착_소외감	.005	.014	.322	.748	-.023	.033		
상수	2.564	.142	18.051***	.000	2.285	2.843	.207	60.670***
성	-.011	.019	-.580	.562	-.049	.027		
월평균 가구소득	.033	.023	1.460	.145	-.011	.078		
학업스트레스	-.147	.012	-12.612***	.000	-.170	-.124		
부애착_신뢰감	.103	.013	8.188***	.000	.079	.128		
학업스트레스 X 부애착_신뢰감	-.029	.014	-2.040*	.042	-.056	-.001		

* p < .05. *** p < .001.



[그림 1]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의 조절효과

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기 청소년의 성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 애착의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은 자아정체감에 각각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고, 학업스트레스와 의사소통, 소외감 및 신뢰감 모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B = -.151, p < .001$)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B = .089,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 ($B = -.034, p < .05$)도 유의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9.10%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B = -.163, p < .001$)와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B = -.061,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B = .040, p < .01$)도 유의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8.00%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B = -.149, p < .001$)와 어머니로부터의 신뢰감($B = .103, p < .001$)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B = -.048, p < .001$)도 유의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어머니로부터의 신뢰감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19.70%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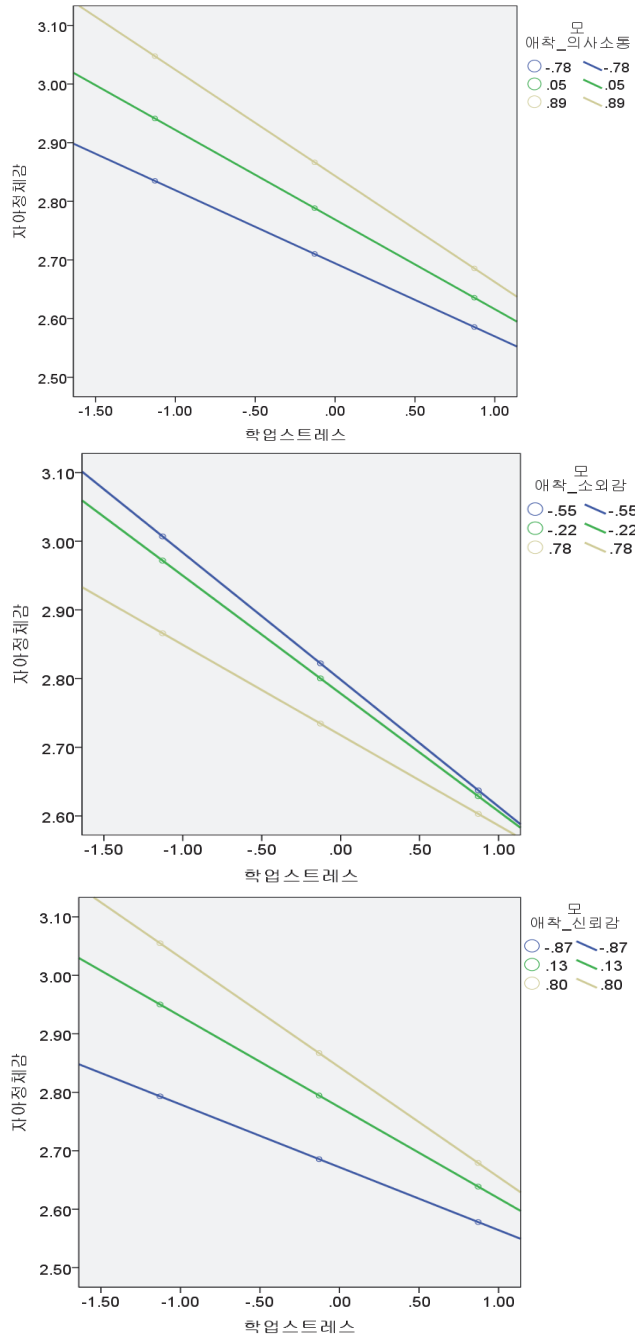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과 신뢰감과 학업스트레스 두 변인의 상호작용 양상을 Pick-a-point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16%(.885, $p < .001$), 50%(.052, $p < .001$) 및 84%(-.781, $p < .001$)에서 모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다음으로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16%(.780, $p < .001$), 50%(-.220, $p < .001$) 및 84%(-.553, $p < .001$)에서 모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로부터의 신뢰감의 16%(.798, $p < .001$), 50%(.131, $p < .001$) 및 84%(-.869, $p < .001$)에서 모두 효과 크기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머니로부터의 신뢰감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에서 모두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표 3〉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조절효과

	<i>B</i>	<i>S.E.</i>	<i>t</i>	<i>p</i>	LLCI	ULCI	<i>R</i> ²	<i>F</i>
상수	2.501	.143	17.482***	.000	2.221	2.782		
성	-.006	.020	-.330	.742	-.045	.032		
월평균 가구소득	.043	.023	1.861	.063	-.002	.088		
학업스트레스	-.151	.012	-12.655***	.000	-.174	-.128	.191	54.901***
모애착_의사소통	.089	.014	6.491***	.000	.062	.117		
학업스트레스 X 모애착_의사소통	-.034	.015	-2.340*	.020	-.062	-.006		
상수	2.532	.144	17.540***	.000	2.248	2.815		
성	-.010	.020	-.533	.594	-.049	.028		
월평균 가구소득	.038	.023	1.655	.098	-.007	.084		
학업스트레스	-.163	.012	-13.790***	.000	-.186	-.140	.180	51.169***
모애착_소외감	-.061	.013	-4.579***	.000	-.087	-.035		
학업스트레스 X 모애착_소외감	.040	.014	2.778**	.006	.012	.068		
상수	2.541	.143	17.793***	.000	2.261	2.822		
성	-.011	.019	-.555	.579	-.049	.027		
월평균 가구소득	.036	.023	1.576	.115	-.009	.081		
학업스트레스	-.149	.012	-12.408***	.000	-.173	-.126	.197	56.987***
모애착_신뢰감	.103	.015	7.007***	.000	.074	.131		
학업스트레스 X 모애착_신뢰감	-.048	.014	-3.395***	.000	-.076	-.020		

* $p < .05$. ** $p < .01$. *** $p < .001$. 초기 청소년의 성은 남=0, 여=1로 코딩.



[그림 2]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 및 신뢰감의 조절효과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인의 관계가 이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애착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의 모든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학업스트레스도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정적 상관, 소외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스트레스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과는 부적 상관, 소외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유사 연구(김나예, 2021; 최은경·조윤옥, 2016)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며, 자아정체감이 부모와의 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효은·김종운, 2016; 최효식·연은모, 2022; Hall & Brassard, 2008; Lee & Beckert, 2012)와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와의 애착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김나예, 2021; 김희주·이지민, 2014; Brar, 2013; Howard & Medway, 2004; Kim & Lee, 2013)를 지지하는 결과다. 이로써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 관련 걱정과 갈등이 초기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찾거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사고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Kingsford, Hawes, & de Rosnay, 2018; Morsunbul, Crocetti, Cok et al., 2016; Zlotnick, Goldblatt, Birenbaum-Carmeli et al., 2019)가 대부분 대학생이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족적, 인종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정체감 등 서구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거나 특수 상황에서 자아 발달을 확인하였다는 한계를 넘어서 이 연구는 청소년기 이뤄야 할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 형성 초기 시점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가정 내 부모 애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 중 신뢰감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조절변인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다.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 모두 이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학교 맥락에서 느끼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의 신뢰감이 중재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의 하위 요인이 모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조절변인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및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 모두 이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및 낮은 집단 모두에서도 이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으나 이들이 지각하는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및 어머니로부터의 소외감의 수준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애착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모 애착을 하나의 지표가 아닌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인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가족 이외의 또래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애착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채진영, 2012), 부모는 여전히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아버지 애착에서 신뢰감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고, 어머니 애착에서는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이 모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것은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요 애착의 대상으로 역할을 한 어머니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신뢰감을 견고히 할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르거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어머니로부터 지각하는 소외감에 대한 경험은 적게 하였음에 기인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의사소통, 신뢰감이 높고, 소외감이 낮은 안정 애착의 경험이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한 경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 애착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관련하여 부모 애착의 하위 요인

별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 결과,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의사소통($t = -20.98, p < .001$) 및 신뢰감($t = -9.64, p < .001$)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소외감($t = 4.41, p < .001$) 역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어머니에게 보이는 안정 애착의 수준이 아버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나아가 아버지 애착의 경우, 의사소통과 소외감에 비해 신뢰감만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것은 Verschueren(2020)의 논의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은 자녀에게 상이한 기능을 보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는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안함이나 안심처가 되는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가 더 광범위한 범위의 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환경에서 탐색을 수행할 때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안전 기지(secure base)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Kerns, Mathews, Koehn, Williams et al., 2015)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기 자율성과 독립성, 사회적 및 비사회적 맥락에서 탐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의 경험이 높아지지만 아버지로부터의 신뢰감 즉,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고, 이런 아버지에 대해 신뢰하여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를 지각하고 이때 제공되는 안전 기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특히 이 시기 청소년에게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아버지의 애착이 어머니의 애착보다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유능성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uist, Dekovic, Meeus et al., 2002)에 근거하여 실증적 연구가 축적된다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의 애착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횡단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변인 간 인과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중학교로의 학교 전이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지각하는 자아정체감의 종단적 변화를 추적하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한다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에 청소년의 응답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점차 시도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 시나리오 등 실험 과제를 적용하여 기존의 설문지법을 보완한다면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지만 코로나19의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관련 사교육의 비율이 높아졌음(교

육부, 2022b)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관련이 있는 또래 요인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용, 학교 적응 및 코로나19와 같은 주변 환경 내 자아정체감의 다양한 예측 및 결과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한다면 이들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초기 청소년이 학교 맥락에서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부모와의 안정 애착이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어떤 집단에 대한 일체감을 말하는 심리·사회적 정체감을 의미하는 객관적 측면과 개인이 집단 내에서 타인과 다른 독립된 고유 존재로서 갖는 개별적 정체감인 주관적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Erikson, 1968)으로 사회적 환경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한다(Luyckx, Goossens, & Soenens, 2006). 이를 위해 가정의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정도, 질 및 부모-자녀 간 공유되는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해보고,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족 응집력과 유연성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어머니에 비해 부족한 아버지와의 애착을 보완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 수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이며,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환경에서 탐색의 기회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초점을 맞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가정 내 수행하는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아정체감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면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정서적 요인인 학업 관련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내 상담의 전문화와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 고등학교에 비해 그동안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초등학교

부터 이들이 지각하는 위기, 어려움, 스트레스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 이들에게도 생활지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지만 중, 고등학교에 비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고 전문상담활동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다(김광수, 2021). 특히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져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빠른 2차 성장과 함께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이와 더불어 학업 및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음(김광수, 2019)에 발맞추어 초등학생에게 전문상담사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학생상담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김광수, 2021)을 알 수 있다. 이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 교사를 통한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상담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전문상담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보완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초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협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여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 선별하여 마음의 건강을 살피고 학교 생활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집중력 저하, 불안, 우울, 학습부진, 사회성 부진, 짜증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이고 반항적 태도, 스트레스, 자기통제부족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관심군이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계된 전문 기관에서 추가적인 평가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중, 고등학생 검사에 비해 학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일차적으로 발견하고, 관심군으로 분류될 경우 추후 검사나 치료 연계를 가진 사람은 부모로, 부모가 느끼는 주관적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부모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김명희·서지민, 2017). 이에 소수의 문제아동 중심의 사후대처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강점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심리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예방 전략을 마련하도록 학교 상담과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학부모 협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a).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에서 2023. 10. 23. 인출
- 교육부(2022b).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세종: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12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 10. 23. 인출
- 김광수(2019). 긍정심리학 성격강점기반 인성교육: 아동·청소년 행복을 위한 교육과 상담. 서울: 학지사.
- 김광수(2021). 초등학교 상담의 현황과 과제. *상담학연구*, 22(6), 49-73. <https://doi.org/10.15703/kjc.22.6.202112.49>
- 김나예(202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조절효과. *Crisisonomy*, 17(5), 147-158. <https://doi:10.14251/crisisonomy.2021.17.5.147>
- 김명희·서지민(2017).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에 대한 학부모의 지식과 태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207-218. <https://doi.org/10.4094/chnr.2017.23.2.207>
- 김효은·김종운(2016). 초기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지지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365-392.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9.365>
- 김희주·이지민(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31-45. <https://doi.org/10.7466/JKHMA.2014.32.6.31>
- 민하영·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미숙·구자경(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휴대폰중독의 관계 -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2001-2015. <https://doi.org/10.15703/kjc.13.4.201208.2001>
- 박재홍·김성환(2011).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17(1), 11-20.
- 송현옥(200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정림·김지현·이규림·조혜주·임종한·Carlo, G. (2017). 한국 어린이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812>에서 2023.

10. 23. 인출

- 조한익·김영숙(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장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 30(4), 783-810. <http://dx.doi.org/10.17286/KJEP.2016.30.4.06>
- 채미경·김현숙(2018).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53-71.
- 채진영(201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1), 71-87.
- 최은경·조윤옥(2016). 기독교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 30(2), 245-274.
- 최효식·연은모(2022). 부모의 결혼만족도,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자기-상대방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351-365.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1.351>
- 홍예지(2023).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의 변화 유형과 심리·정서적 및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4(3), 279-291. <https://doi.org/10/5723/kjcs.2023.44.3.279>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319-335). The Guilford Press.
- Allison, M. D., & Sabatelli, R. M. (2021).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16. <https://doi.org/10.1177/07435548883100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Berman, S. L., Weems, C. F., Rodriguez, E. T., & Zamora, I. J. (2006). The relation between identity status and romantic attachment style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9(5), 737-748.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5.11.004>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1.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ume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rar, R. (2013). Coping strategies and parental attachment as predictors of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0), 47-51.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G. (2002). Developmental patterns in adolescent attachment to mother, father and sibling.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1*(3), 167-176. <https://doi.org/10.1023/A:1015074701280>
- Côte, J. E., & Levine, C. (1983). Marcia and Erikson: The relationships among ego identity status, neuroticism, dogmatism, and purpose in lif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1), 43-53.
- Emmanuelle, V. (2009). Inter-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self-esteem,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91-99. <https://doi.org/10.116/j.jvb.2009.04.00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Hall, S. P., & Brassard, M. R. (2008). Relational support as a predictor of identity status in an ethnically diverse early adolescent sampl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1), 92-114. <https://doi.org/10.1177/027243160730866>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Y: Guilford publications.
- Howard, M., & Medway, F. J. (2004). Adolescents' attachment and coping with stres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3), 391-402. <https://doi.org/10.1002/pits.10167>
- Ji, W., Lan, R. M., Ma, P., Zhang, H., & Fan, L. (2023). Maternal positive coparenting and adolescent ego-identity: The chain mediating role of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adolescent peer relationships.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27941. <https://doi.org/10.3389/fpsyg.2023.1227941>
- Kerns, K. A., Mathews, B. L., Koehn, A. J., Williams, C. T., & Siener-Ciesla, S. (2015). Assessing both safe haven and secure base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7*(4), 337-353. <https://doi.org/10.1080/14616734.2015.1042487>

- Kim, E., & Lee, M. (2013).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academic stress in Korea.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1(9), 1519-1532. <https://doi.org/10.2224/sbp.2013.41.9.1519>
- Kingsford, J. M., Hawes, D. J., & de Rosnay, M. (2018). The moral self and moral identity: Developmental questions and conceptual challeng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652-666. <https://doi.org/10.1111/bjdp.12260>
- Lee, C.-T., & Beckert, T. Y. (2012). Taiwanese adolescent cognitive autonomy and identity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of situational and agential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1), 39-50. <https://doi.org/10.1080/00207594.2011.572972>
- Li, C., Zhang, X., & Cheng, X. (2023). Associations among academic stress, anxiety,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nd aggression: An examination of the general strain theory in a sample of Chinese adolescents. *Current Psychology*, 42, 21351-21362. <https://doi.org/10.1007/s12144-022-03204-w>
- Luyckx, K., Goossens, L., & Soenens, B. (2006).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on identity construction in emerging adulthood: Change dynamics in commitment formation and commitment 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66-380. <https://doi.org/10.1037/0012-1649.42.2.366>
- Ma, C., Ma, Y., & Lan, X. (2020).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ty and grit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 *Frontiers in Psychology*, 11, 677. <https://doi.org/10.3389/fpsyg.2020.00677>
- Maltais, C., Duchesne, S., Ratelle, C. F., & Feng, B. (2017). Learning climate, academic competence, and anxiety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Parental attachment as a protective factor.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7, 103-112. <https://doi.org/10.1016/j.erap.2017.01.002>
- Marcia, J. E. (1993).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In J. E. Marcia, D. R. Matteson, J. L. Orlofsky, A. S. Waterman, & S. L. Archer (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3-21). New York: Springer-Verlag.
- Mohanty, S. (2017). Development of spiritual intelligence and self-identity among adolescents: A study of gender difference. *Scholarly Research Journal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37(4), 8350-8359.

- Morsunbul, U., Crocetti, E., Cok, F., & Meeus, W. (2016). Identity statuse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Turkish youth: A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47*, 145-155.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15.09.001>
- Negru-Subtirica, O., Pop, E. I., & Crocetti, E.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reciprocal associations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vocational identity: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31-142. <https://doi.org/10.1016/j.jvb.2015.03.004>
- Reynolds, K. J., Lee, E., Turner, I., Bromhead, D., & Subasic, E. (2017). How does school climate impact academic achievement? An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process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8*(1), 78-97. <https://doi.org/10.1177/0143034316682295>
- Rich, Y., & Schachter, E. P. (2012). High school identity climate and student identity develop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7*(3), 218-228. <https://doi.org/10.1016/j.cedpsych.2011.06.002>
- Sharp, E. H., Coatsworth, J. D., Darling, N., Cumsille, P., & Ranieri, S.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self-defining activities and identity experiences of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ce, 30*(2), 251-269.
- Shirima, C., Naudé, L., & Esterhuyse, K. (2021). The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aspiration among South Africa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1*, 607-630. <https://doi.org/10.1007/s10775-020-09456-x>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83>
- Verhoeven, M., Poorthuis, A. M. G., & Volman, M. (2019). The role of school in adolescents' identity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1*, 35-63. <https://doi.org/10.1007/s10648-018-9457-3>
- Verschuere, K. (2020). Attachment, self-esteem, and social-emotional adjustment: There is more than just the mother.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2*(1), 105-109. <https://doi.org/10.1080/14616734.2019.1589066>
- Xie, X., Chen, W., Zhu, X., & He, D. (2019). Parents' phubing increases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Roles of parent-child attachment, deviant peers, and gende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5*, 104426.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9.104426>
- Xu, T. T., Wang, H. Z., Fonseca, W., Zimmerman, M. A., Rost, D. H., Gaskin, J.,

et al.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olescents' problematic smartphone usage. *Addiction Research & Theory*, 27(2), 162-169. <https://doi.org/10.1080/16066359.2018.1488967>

Zhang, W. J., Yan, C., Shum, D., & Deng, C. P. (2020b). Responses to academic stress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difficulties and depressive/anxiety symptoms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3, 89-98. <https://doi.org/10.1016/j.jad.2019.11.157>

Zlotnick, C., Goldblatt, H., Birenbaum-Carmeli, D., Dishon, Y., Taychaw, O., & Shadmi, E. (2019). The impact of adolescents' racial and ethnic self-identity on hope. *Health and Social Care*, 27(5), e705-e715. <https://doi.org/10.1111/hsc.12795>

- 논문접수: 11월 6일 / 수정본 접수 12월 4일 / 게재 승인 12월 18일
- 교신저자: 안혜령,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ahyer@dau.ac.kr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Early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elf-Identity: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Yea-Ji Hong, Hye-Ryung A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early adolescents' academic stress,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using data from the 12th wave involving 1,248 households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reliminary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on the relation between early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elf-identity were examin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nd considered early adolescents' sex and household monthly income as covariat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arly adolescents' self-ident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and the subscales of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Second, among the subscales of paternal attachment, trus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ffec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stress on their self-identity, whereas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did not. Third, all subscales of maternal attachment, communication, alienation, and trust showed significantly moderated effects between early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their self-identit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academic stress, self-identity, maternal attachment, paternal attachment, early adolescence